

들어가는 이야기

기적의 사과 by 이시카와 다쿠지

I. 순종 : the only human business

1.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기쁨의 순종은 삶의 최상의 길이다.
2. 그 하나님의 뜻은 계명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무한 신비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3. 그러나 그 계명의 이해는 왜곡되어 있다.

- 계명 — { guarantee : 지키면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보장)
censure : 세상 것을 다 부인해야 되는 금지 (비난) old fashioned, heavy handed, outmoded

진 실

인간 : yearn to be addressed

인간은 들음(쉐마)의 존재이다

- 들음에서 인간의 communion은 시작된다.
들음 : 삶의 가치를 결정
- 하나님의 계명, 들음에서만 '나'를 알고 '나' 되어서 간다.

4. 결론 : 순종은 즐거워하며 기꺼이(자원함) 나를 내 최고의 선택에 드리는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길

II. 순종이 불가능해진 이유

1. self-sufficient life

- 나 - 중심으로 만든 나의 세계에 갇혀 있음.
서로 이야기, 서로 듣고, 교통이 없다
- 자유하고 무한 풍성하고 신비한 세계를 모른다.
- 결과 : 계명이란 어렵게 만든 내 세계에 대한 정죄와 거부이다.

2. self-sufficient world

- 우리의 안전과 부요를 위해 저들의 것을 착취하여 세운 우리의 세계
- 더 가진 자의 욕망 'more'와 'more'가 주는 불안의 저주를 모른다.
예: GNP 4만불 이상 : 신경안정제, 자살, 우울증
- 결과 : 계명이란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몽상이다.

III. 순종의 뿌리 : 세례적 바라봄(envision)

not 우리의 의지

1. 순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

- 능력
not ought to, should, must
- 용기
not new information

2. 능력과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envisioning

행 2:17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3. 세례 : 옛 세계에 대하여 죽고 새 세계에 대하여 살아남 (다시 태어남)

세례의 3중 확증과 순종

첫째, 옛 세계를 깨어버리는 새 세계의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개입이 일어났다.

- 불순종의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은 열렸다.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둘째, 하나님 자신을 드러 연 새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옛 세계는 멸망한다.

사 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미 4:3-4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렘 31:31-34, 겔 34:11-16, 사 65:17-25

계 11: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셋째,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초림)과 약속의 완성(재림) 사이에 있다.

살전 5:3-8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롭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순종은 이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다 —
 - 현상(육망)의 허무
 - 영원한 꿈의 가꿈

- 순종은 —
 - celebrate intervention
 - awaits transformation

- 순종에 대한 선포 —
 - not 선악과적 설명 : 정죄
 - nor 강압적 요구 : 저주
 - but 함께 꿈꾸기로의 초청 ‘바라보라!’

4. 결론 : 순종은 나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누림의 열매이다.

예: 거짓말 않기 훈련

IV. 순종의 중심 : 제 4 계명의 비전 안식에의 순종

- 1 - 4 계명 : 안식일을 지키면 1 - 3 계명은 자동 준수됨
- 5 - 10계명 : 제 10 계명을 지키면 5 - 9 계명은 자동 준수됨

- 계명 — { not just 규정, 규칙
but 함께 바라봄 (envisioning)
not just given
but what is possible

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하나님께서 쉬셨다 = 피조세계 근본구조에 쉬이 들어가 있다.
- 하나님께서 쉬셔도 피조세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
- 무엇보다도 욕망의 쉬이 필요하다 : 자유와 의미 창조

2. 네 종을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 5: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
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
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 안식 : 조건과 상황의 절대화를 거부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

3. 나를 신뢰하라

떡의 확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다.

출 16장 : 만나이야기 (안식일 계명 : 3X 23, 25, 28-29)

- 떡을 확보해야만 살 것 같음 : 계명에도 불구하고 거두러 나감
남졌다 썩고 벌레가 생김

- 우리의 삶 — { not scarcity, anxiety
but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 8:3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 더 큰 것을 꿈꾸라

암 8:4-6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켈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 삶의 지혜와 슬수 — { not 내 세계 부풀리려
but 더불어 살기의 확장

- 내 세계를 부풀릴수록 불안은 증폭된다.
- always more / never enough

5. 왕국적사고를 가지라

사 56:7 내 집은 만민이 가도하는 집이라 일철음이 될 것임이라

- 귀환기의 질문 : 누가 이스라엘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의 질문

- 답 변 : 만민 with 두 가지
 사 56:1-6 안식일을
 언약을 } 지키는 누구든지 (고자, 이방인)
- 중심 = 안식
 언약의 중심 : 희년

6. 무엇보다도 인간회복을 바라보라

막 2:23-27 제자들 이삭 잘라 먹음

마 12:9-14 회당의 손 마른자 고치심

막 2:2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안식일은 인간회복(humanization)의 시간이다.
 yet 종교적 규제가 되어 오히려 인간을 억누르고 있다.
 - 공동체 분리(지키는 자 / 못 지키는 자) 통한 기득권 유지

- 성경해석 — { 하나님의 꿈을 상실한 채 기득권의 도구로 쓸 때에 파괴적이 된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꿈(가슴)은 어떻게 피어나야 하는가

예: 느헤미야 as 성공적인 지도력
 희년정신(안식)의 반대

V. 결 론

1. 죄는 그 단절과 상처와 파괴로 말미암아 쉽 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게 만든다.
 drivenness to control

“Citi never sleeps” = We run to die

2. 죄로부터의 자유는 안식에서 출발된다.

- 안식 — { 신뢰의 출발
자유의 출발

3. 요한복음적 결론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